

EBS, Quam Libet.

수능특강 윤리 by 마이뉴

1	누구? 68p
	만일 칠정(七情)과 사단(四端)을 대립시켜 각각 분별하여 말한다면, ... 그 발(發)함에 각각 혈맥이 있고, 그 이름에 모두 가리키는 바[所指(소지)]가 있습니다. 그러므로 그 주된 바[所主(소주)]에 따라 분속할 수 있습니다. 비록 저 또한 칠정이 이와 관계없이 외물(外物)과 우연히 접촉하여 발동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또한, 사단이 사물에 감촉되어 동하는 것은 진실로 칠정과 다르지 않습니다. ...
2	누구? 70p
	천하에 이(理)없는 기(氣)가 있을 수 없고, 기 없는 이가 있을 수 없다. ... 이가 있으면서 기가 따르지 않는다면 형성되어 나올 수 없고, 기가 있으면서 이가 타고 있지 않으면 이욕(利慾)에 빠져서 금수가 되는 것이다.
3	누구? 71p
	대저 이(理)라는 것은 기(氣)를 주재하는 것이요, 기는 이가 타는 곳이다. 이가 아니면 기는 근거할 바가 없고 기가 아니면 이가 의착할 곳이 없다. 그래서 이물(二物)도 아니며 또 일물(一物)도 아니다. 일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이면서 둘이요, 이물이 아니기 때문에 둘이면서 하나이다.
4	누구? 71p
	이는 비록 하나이나 기를 타면 그 나뉘이 만 가지로 다르게 된다. 그러므로 천지에 있어서는 천지의 이가 되고, 만물에 있어서는 만물의 이가 되며, 사람에 있어서는 사람의 이가 된다.
5	A(이)가 B(을)를 비판한 글 72p
	의리는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고 힘쓰지 않으면 능히 할 수 없다. 설령 겉으로 행한다 해도 안으로 반드시 진실되다 할수 없다. 그러므로 선(善)을 보고도 선인 줄 모르는 자도 있고, 선인 줄 알면서도 마음으로 좋아하지 않는 자도 있다. 그런 사람들이 선을 보았을 때 이미 저절로 좋아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? 불선(不善)을 보고 미워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고, 미워해야 할 것인 줄 알면서도 마음속으로 진실되게 미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. 이런 사람들에게 불선을 보았을 때 이미 그것을 저절로 미워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? ...
6	누구? 73p
	... 음(陰)이 멈추고 양(陽)이 움직이는 것은 기가 저절로 그러한 것이요, 시킨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. 양이 움직이는 것은 이가 움직임을 탄 것이지 이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. 음이 멈춘 것은 이가 멈춤을 탄 것이지 이가 멈춘 것은 아니다. 기는 작용이 있으나 이는 작용이 없다.